



해외 동향

□ 독일 릴리움, 실제 크기 항공택시 테스트 비행 성공

- 독일 항공 택시 스타트업 릴리움(Lilium), 5인승 전기 제트 비행기 시험비행 성공
- 2025년 항공택시 상업운행 목표, 관련 인증절차 미 연방항공청(FAA)에 신청 예정
- 현재 조비 에비에이션, 키티 호크 등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업체들 항공택시 시스템개발 중



릴리움 제트

- 4개의 날개, 36개의 전기 제트엔진 장착
- 꼬리, 항공기 방향타, 프로펠러, 기어박스가 없는 것이 특징
- 시속 300km속도, 최대 300km 운항 가능

□ 롤스로이스, 가장 빠른 전기 비행기 개발 도전

- 영국 자동차·항공엔진 제조사 롤스로이스(Rolls-Royce Ltd.) ,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 비행기 개발에 도전
- 내년 영국에서 첫 선, 전기 비행기의 이름은 ‘악셀(ACCEL)’
- 현재까지 가장 빠른 전기 비행기, 2017년 독일 지멘스가 개발 (속도 337km/h)



악셀 (ACCEL)

- 리튬이온 셀로 이뤄진 750V 배터리 팩 6000개 탑재
- 1회 완충으로 322km 운행
- 500마력 이상 고출력 전기모터 3개 장착
- 최고속도 482km/h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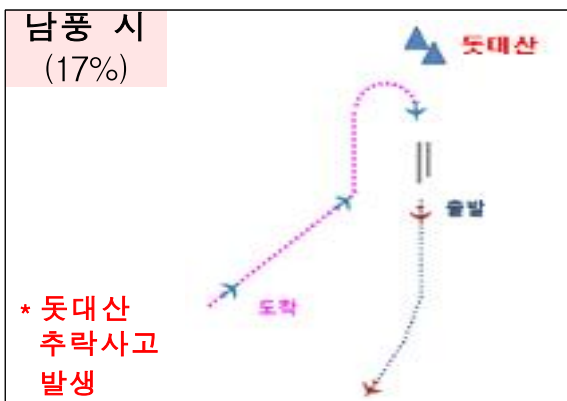


국내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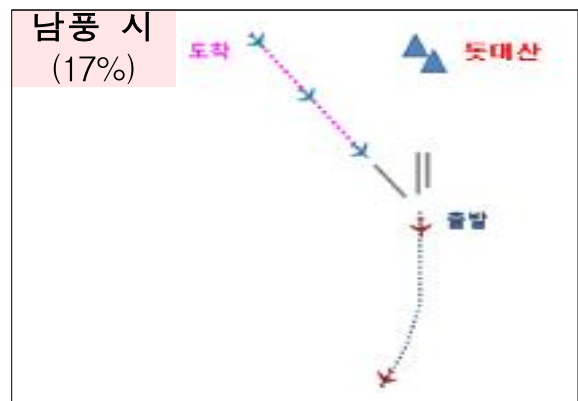
□ 국토교통부, 現 김해공항 문제점 개선하여 김해신공항 건설할 것

- 現 김해신공항, 남풍(17%)이 부는 경우 돛대산과 충돌 위험
- 저축 장애물(돛대산)의 존치 결정을 문제 삼는 일부 여론에 대해 반박함
 - 장애물 제한표면에 저축된다고 해서 모든 장애물 절취하지 않음
 - 인천·무안공항 등도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고 공항 운영
 - 장애물 절취를 판단하는 기준은 안전한 이착륙을 위한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한지 여부
- Open-V 활주로 신설 시 김해신공항의 안정성 대폭 향상 가능함
 - ※ 現 김해도심 방향으로 이륙 → 新 농경지 상공 통과
- 신설활주로 길이(3,200m)는 A380 등 F급 대형 항공기, 장거리 노선 운항 등 대규모 수요처리 가능

< 현재 김해공항 이착륙 항로 >



< 장래 김해신공항 이착륙 항로 >



□ 한화에어로, 美 항공엔진 부품사 EDAC(이닥) 인수

- 미국 코네티컷 주에 위치한 EDAC(이닥)*의 지분 100% 인수
 - *EDAC(이닥) : 항공우주분야 정밀부품 개발·제작사로 프랫&휘트니와 GE 등에 납품
- 지난달 최종입찰을 통해 인수계약, 인수금 3억 달러(3500억 원) 수준
- 수주확대 및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, 미국 현지 사업 확대 플랫폼 구축의 효과 기대

□ ‘항공일자리 민관합동 지역별 릴레이 설명회’ 개최

- 민간항공수요 급증으로 2027년까지 전세계 민항기 조종사 수 63만 5천명 추산
 - ※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민항기 조종사 29만 5천여 명
- 세계 각국 항공사, 조종사 수요 충족을 위해 자체 인력 양성에 적극
- 국토교통부, 부산(6.3.)·광주(6.5.), 제주(6.11.) 지역에서 ‘항공일자리 민관합동 지역별 릴레이 설명회’ 개최
- 항공분야 취업 지원을 지역으로 확대하여 채용정보 불균형 해소에 의미
- 행사 8개 기업* 인사팀 직원이 채용설명을 하고, 신규직원이 취업준비과정 및 입사 노하우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도움 줄 계획
- * 참여기업(8개) :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항공우주산업(주), 대한항공, 제주항공, 진에어 에어부산, 티웨이 항공

□ KF-X의 눈 ‘AESA 레이더’ 시제품 제작 초읽기

- 한국형전투기(KF-X) 사업 성공의 핵심으로 꼽히는 능동전자주사식 위상배열(AESA) 레이더의 시제품 제작이 초읽기에 들어감
- ※ AESA 레이더 : 공대공·공대지·공대해 표적을 실시간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전자적 빔 제어
- KF-X AESA 레이더 개발 및 체계 통합은 국방과학연구소(ADD) 주관



‘AESA 레이더’ 사업진행 사항

- 2016.8. 사업 착수 → 2018.6. 기본설계 완료 → 2020. 시제품 출고(예정) → 2023. 지상·비행시험 → 2026. 개발 완료(예정)



관내 동향

□ 항공부품 해외수주개척단 유럽(독일, 폴란드) 타겟마케팅 추진

- 5월 20일부터 24일 5일간, 폴란드 제슈프에서 열린 ‘중부유럽항공방산미팅’ 참가
 - 참가업체: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(사천), 코텍(사천), 영풍전자(창원)
- 항공부품 수주위한 B2B 미팅을 통해 수출상담 21건, 상담액 23 백만 불 실적 달성 (한화 276억 원)
- 제슈프 시 주요 항공기업(MTU, MB Aerospace, P&W, Safran) 방문 하여 생산현장 벤치마킹 및 네트워크 구축

□ (주)카프마이크로, 항공산업 스마트공장 자동화 솔루션 기술 확보

- (주)카프마이크로, 2018년 상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‘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’에 선정 [총사업비 632백 만 원(시비 118 백만 원)]
-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제어, 실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/하드웨어 융복합 기술 기반의 IoT기술, 다품종 생산에 적합한 유연하고 가변 가능한 설비의 하드웨어 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산업 환경 반영
- 정밀 위치제어가 필요한 항공기 기체 조립 공정이나 우주발사체 조립 공정에 적합한 첨단 자동화 솔루션(Smart Hexapod) 개발 완료
- 올해, AR(증강현실)을 이용한 항공기 기체조립공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에 중점을 둘 계획

□ (주)한국항공우주산업(KAI) 동향

- 신축 건물 상량식* 개최
 - 사무동(지하1층, 지상6층, 신규 본관으로 활용예정)과 회전익동(수리온, 소형무장·민수헬기 등 회전익 개발과 생산 전용시설) 금년 12월 준공 예정
 - * 상량식 : 건물 골격 완성을 기념하는 행사
- 태국 정부와 600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
 - 태국공군의 T-50TH에 레이더와 레이더경보수신기, 채프·플래어 발사장치(CMDS)를 장착하는 개조·개량 사업 (납품기한 2021.10.)
- IAI(이스라엘항공우주주식회사)와 6187억 원 규모의 주익(날개) 공급 계약
 - KAI가 제작한 미국 걸프스트림의 G280 비즈니스 제트기(10인승 규모)의 날개를 IAI가 조립해 걸프스트림에 납품하는 방식(공급계약기간 2030년까지)
 - KAI가 제작한 날개가 통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
- 김조원 KAI 사장, “국산헬기 수리온 우선 구매” 당부
 -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 통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애용운동의 절실함 피력
 - 또한, 항공전자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단지 조성 필요 강조

작성일	2019. 6. 10.(월)	보고일	2019. 6. 10.(월)
부서명	우주항공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박예지 (055-831-3470)